

장성 태청산 풍력발전소 주민 반발

정상 30만㎡ 규모 16기 예정
환경 파괴·주민 피해 대책 미흡
장성군, 도시계획시설 요청 반려

“풍력발전기 없이도 전기 끊기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장성 태청산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나.”
국내의 한 풍력발전 사업자가 장성군 삼계면 태청산 정상부에 풍력발전시설을 건립하려하자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물론 환경 파괴마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지난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부산풍력(주)은 장성군 삼계면 태청산 정상(해발 590

m) 29만6000여㎡ 면적에 3.3MW급 풍력발전기 16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1500억원 규모다.
업체 측은 지난 3월 말 풍력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는 입안서를 군정에 제출했으나, 장성군은 이를 되돌려보냈다.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산지와 주변 환경 파괴 최소화 방안, 주민 피해 대책 방안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체 측이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를 구체화하자 장성 삼계면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풍력발전기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9일에는 삼계면 주민 70여명이 군의원 등과 함께 영암 황철산 태청산풍력발전소 인근 마을을 방문,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영암 금정면 주민들은 귀울림과 어지러움, 불면증 등을 호소했으며 가족 생육피해와 저주파로 인한 피해도 전했다고 한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군의회도 반대에 나섰다.
주민과 의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업 예정지인 태청산 일대 80%가 군유지여서 장성군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성군 관계자는 “풍력발전과 함께 관광사업을 연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 측 관계자는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없이도 잘 살고 있다. 결국 수익은 발전소 사업자가 가져가고,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광주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 우려

신창지구에 내년 착공
매일 290t 목재 연소
주민들, 철저 조사 촉구

광주 신창지구에 목재 부산물을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1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EIG는 내년 2월 착공, 201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창동 10-8번지 일대에 순수목질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업체 측은 시간당 9.9MW급 발전설비를 갖추고 매일 최고 290t 분량의 목자재

부산물을 태우거나 LPG를 보조 연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업체측 계획대로라면 이 곳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은 각각 2만2000세대, 9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업체 측은 열은 수원에너지에, 전기는 한전에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목재를 태워 발생하는 연기 자체로도 환경 오염이나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고 창문도 열 수 없어 생활의 불편이 클 것으로 여기며 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소각시 유해물질을 내뿜는 연기물도 섞일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다. 발전소 부지 반경 2km이내에 거주하는 신창동 주민 등 1300여명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업체 측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

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조만간 광주시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광산구는 이 사업이 고용 창출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일조하며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목재 부산물만을 활용하므로 유해 연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폐목재외의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순수 목질계를 태우는 보일러 출구 온도는 450℃로 설계되기 때문에 통상 850℃ 이상이 유지돼야 소각되는 일반 폐기물을 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대책위 측은 “유해성이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조사가 필요하고 생활불편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보상이나 혜택도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기오염, 고혈압 발생률도 높인다

서울대팀, 70만명 분석
미세먼지·경유차 배출가스
정부 차원 대책 세워야

중국발 미세먼지, 경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등 나날이 심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전 국민의 호흡기 질환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대기오염이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심혈관질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

회 건강조사(2008년~2010년)에 나온 약 70만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으며, 국제학술지 토탈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유병률과 3대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μm/m³씩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이 4.4% 증가했다. 또 이산화질소가 10 ppb 높아지면 고혈압 발생률이 8% 상승했고, 일산화탄소의 경우 10ppb 증가하면 고혈압 발생률이 13% 높아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그동안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심혈관질환 발생률까지 높인다는 1년 단위 장기 관찰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 원장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도 미세먼지 주의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경유 자동차 역시 대기오염에 주범인 것은 확실하지만, 둘 중 무엇이 더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대기오염이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짙은 황사에 뒤덮인 광주시 서구 양동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장산서 발견된 한라새 동지란.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제공>

내장산서 ‘한라새동지란’ 발견

습지 서식 다년생 식물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한라새 동지란이 내장산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라새동지란은 제주도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된 다년생 부생식물로 주변 습도가 높은 지역에 서식한다.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 근래 보기 힘든 식물이 발견됐다”며 “서식지 보전뿐 아니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 생물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

광주시, 접수창구 운영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놓고 논의한 결과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내야 한다.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광주시와 경기도·전북도 등 광역단체 4곳이고,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환경연 ‘탈핵 영화’ 상영

오늘 남광주푸른길공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 남광주푸른길공원에서 ‘탈핵 영화’를 상영한다. 이날 행사는 환경운동연합이 매일 1일이면 진행되는 탈핵 캠페인의 하나로, 다소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공금한 사항을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대 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투자 하실 분 / 공중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밀 배우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